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국내 간호연구 현황 분석

안은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urrent Status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related Research within Korean Nursing Literature

EunKyong Ahn

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국내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전문직 간 교육 연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확장성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총 5편이었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간호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7년이었고, 전문직 간 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 대상 논문들의 주요 결과는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인식, 중재로서의 전문직 간 교육의 효과, 전문직 간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의 타당화로 분류되었다. 간호사와 타 전문 인력의 협력은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전문직 간 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와 이를 간호교육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 전문직 간 교육, 전문직 간 협력, 간호연구, 간호교육, 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e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related research within Korean nursing literature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IPE research. For this, Five articles were included for final review. As a results, IPE in nursing research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2017. Studies have confirmed that no clear definition of IPE concepts has been established in nursing education. Key findings regarding IPE were categorized into Awareness of IPE, Effects of IPE as an intervention and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tools measuring effectiveness of IPE. The collaboration of nurse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is essential to providing quality healthcare. Therefore, considerable effort should be made to define the concept of IPE and activate research to effectively apply it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in Korea.

Key Words :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Nursing Research, Nursing Education, Analysis

1. 연구의 필요성

환자 중심의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분야 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1]. 이에 최근 협력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문화를 육성하는 전략[2]으로서 전문직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기조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3], 앞으로는 간호학, 의학, 사회복지학, 약학 등과 같은 분야를 아우

르는 IPE가 매우 필요하다[4].

IPE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들이 함께 배우고(learn with),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learn from), 서로에 대하여 배움(learn about each other)으로써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이다[5].

보건의료 분야에서 IPE는 강의실과 임상 모두에서 전문직 간 협력을 추구하고 전문직 간 의사소통 향상, 고정관념 개선, 타 분야의 전문 범위에 대한 이해 향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6].

*Corresponding Author : EunKyong Ahn(aek@dst.ac.kr)

Received April 22,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28, 2021
Published June 28, 2021

이러한 IPE를 면허 취득 전 단계의 보건의료 전공학 생에게 적용하였을 때 실무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자 간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8].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협력, 실무역량, 역할 이해 등의 역량이 증가되는 성과가 있음이 다수에서 확인되었다[9].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IPE 도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는 IPE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1] IPE를 통해 보건의료전공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및 협업역량을 개발하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10],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문직 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IPE도 이루어지고 있다[8]. 반면, 우리나라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간호학과 교수와 간호사들의 약 11%만이 IPE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 IPE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아직 간호교육과정에 통합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8]. IPE에 대한 선행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써[11], 국내 간호학자들의 연구가 보고된 것은 2017년[1] 이후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는 간호교육에서 IPE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1], IPE 시행을 위한 전문직 간 학습준비도 조사[8], 환자 안전을 위한 IPE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12]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듯 국내 간호교육에 있어 IPE는 초창기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논의 및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PE의 도입을 위해서는 간호 리더들이 간호 전문직의 본질을 형성하는 IPE의 현재와 미래 잠재력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IPE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IPE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과 확장성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교육에서 IPE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IPE에 대한 국내 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분석 대상 선정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IPE에 대한 간호 연구 5편이다. 연구의 선택 기준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IPE에 관한 논문으로서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간호학과 학생을 포함한 타 전공 학생 대상 논문 포함),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다. 제외 기준은 학위논문,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 종설 및 문헌고찰 논문, 학술대회 발표 초록이며, 출판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2.3 자료 수집방법

문헌 검색을 위해 이용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과학 기술 지식인프라 사이언스 온(Science on),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이다. 주제어인 '전문직 간 교육'을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일차적으로 총 88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들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모두 확인하며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853편을 제외한 결과 35편의 논문이 남았다. 이 중 중복된 논문 27편을 제외하고 8편을 선정하였다. 8편의 논문 원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논문으로 최종 5편이 선정되었다 (Fig. 1 참고).

2.4 자료 분석방법

분석 대상 논문의 원본을 연구자가 모두 고찰한 후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 범주를 결정하였다. 국내에서 IPE 개념의 초기 도입 단계인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 일반적 특성은 저자의 소속 학문 분야, 출판 학회지, 연구 설계와 연구 대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어, 목적, IPE 개념의 정의를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주요 결과는 IPE 개념에 대한 인식(awareness), 중재(intervention)로서의 IPE, IPE의 효과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validation)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빈도는 실수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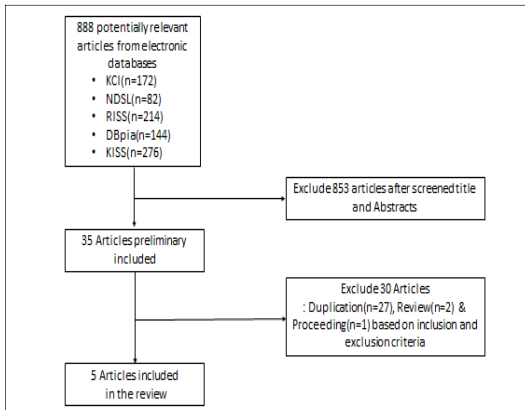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search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 5편은 Table 1과 같다. 국내에서 시행된 IPE 관련 연구 중 간호사와 간호학생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된 논문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7년이었다. 이어서 2019년에 3편, 2020년 1편이 발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의 학문 분야는 간호학이 3편, 의학이 2편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출처는 의학 교육논단(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3편, 한국간호교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편, 디지털융복합연구(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설계의 유형을 살펴보면, 5편 모두 양적 연구였고, 구체적인 유형은 서술적 조사연구 2편, 방법론적 연구 2편, 유사실험연구가 1편이었다. 연구 대상자 별로 보면, 간호사와 간호학 교수로 구성된 논문 1편, 간호학과 학생과 의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논문 2편, 간호학과 학생과 기타 보건의료관련 전공 학생으로 구성된 논문이 2편이었고, 간호학과 학생으로만 구성된 논문은 없었다.

Table 1. Summary of the articles included in the review(N=5)

Authors (year)	Field of authors	Publication	Research design	Study populations	Educational setting
Kim et al (2017)	Nursing	KMER	descriptive	136 Nurses 103 nursing professors	Workplace
Kwon et al (2019)	Medicine	KMER	Methodological	65 nursing students 303 medical students	Undergraduate
Lee et al (2019)	Nurs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descriptive	76 nursing students 249 other health-related discipline students	Undergraduate
Shin (2019)	Nursing	J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ntal (one group pretest-posttest)	10 nursing students 20 health-related discipline students	Undergraduate
Park et al (2020)	Medicine	KMER	Methodological	65 nursing students 349 medical students	Undergraduate

Table 2. Key words of the articles(N=5)

Authors	Key words	Purpose	Definition of IPE
Kim et al (2017)	Interprofessional education, Nursing, Perception	Measuring perception	Yes
Kwon et al (2019)	Interprofessional education, Medical students,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Developing measurement tool	Yes
Lee et al (2019)	Nursing students, Interprofessional relations, Nursing education	Measuring perception	Yes
Shin (2019)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atient safety, Clinical practice, Nursing, Physical therapy, Biomedical laboratory	Developing IPE Program	Yes
Park et al (2020)	Attitude, Medical students,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Statistical factor analysis	Developing measurement tool	No

3.2 주요어 분석

분석 대상 논문의 주요어, 목적과 IPE 개념 정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주요어를 살펴보면, 3편의 논문에서는 IPE가 포함되었으나, 나머지 2편 중

1편의 논문에서는 전문직 간 관계 (interprofessional relations), 1편의 논문에서는 태도(attitude)가 포함되었다. 그 외의 주요어는 간호(2편), 간호학과 학생(2편), 의학과 학생(2편), 환자안전(2편), 인식(1편), 자기효능

감(1편), 간호교육(1편), 임상실무(1편), 물리치료(1편), 임상병리(1편), 요인분석(1편)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IPE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논문 2편, IPE의 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논문 2편, IPE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논문 1편이었다.

IPE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이 4편이었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논문은 1편이었다.

3.3 주요 결과 분석

연구의 범주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IPE에 대한 인식 연구는 2편으로 간호사와 간호학교수 대상 논문 1편과 간호 대학생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대상의 논문 1편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학교수들은 IPE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경험도 거의 없지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간호사들에 비해 IPE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은 다른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에 비해 IPE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E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교과목은 의사소통이나 실습교과목, IPE를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의사로 조사되었다. IPE를 통해 달성 가능한 학습성과는 전문직 간 의사소통과 협력, 갈등해결과 팀워크 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재로서의 IPE에 대한 연구는 1편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IPE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PE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의 타당화 연구는 2편이었다. 이들은 각각 전문직 간 태도(interprofessional attitude)와 전문직 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측정 도구의 한국어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 척도들은 IPE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Table 3. Key findings regarding IPE(N=5)

Categories	Authors	Key findings
Awareness of IPE	Kim et a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st participants had not experienced IPE, and only a few knew about IPE. Approximately 80.0% answered that IPE is necessary Nursing professors were more prepared for IPE than nurses Considered upper-grade undergraduate years as the ideal time for imparting IPE Deemed suitable to include communication, simul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IPE Doctors was thought to require cooperation for IPE the most IPE can achieve learning outcomes such as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teamwork
	Lee et a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cores of readiness for interprofessional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other health-related students
Effects of IPE as an intervention	Shin(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were increased but the attitude was not changed after administering IPE program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tools measuring effectiveness of IPE	Kwon et a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efficacy for Interprofessional Experimental Learning Scale(SEIEL) was identified. It can be helpful i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IPE in Korea
	Park et a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rofessional Attitude Scale(IPAS) was verified. It can be us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PE in Korea

4. 논의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이 발표된 것은 2017년 이후이며, 2020년까지 5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부터 IPE에 대한 논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14]인 국외에 비해 국내 간호교육 분야에서 IPE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고 IPE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국내 10여 개의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IPE가 이루어지는 등[15]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본 연구

의 분석 대상 논문 5편 중 2편의 저자들이 의학과 소속 이었고 이들의 연구에 의학과 학생과 함께 간호대학생이 포함되었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IPE는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줄이고 상호존중하며 협력하여 긍정적 환자 결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1]. 반면 일부 학자들은 IPE가 보건의료계의 역사적인 계층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6]. Grant 등[13]은 IPE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방식은 간호가 의학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하위 위치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는 IPE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에서 IPE에 대

한 비판적 담론이 부족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PE에 대한 간호 연구자의 주도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간호학은 인문사회 과목과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전문직 간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 학문[8]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논문 5편 중 4편이 학부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1편은 간호사와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IPE는 전문직 문화를 습득하기 이전에 협력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실무 현장에서의 협력 정도를 높이기 때문 학부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17]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을 대상으로 IPE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고무적일 수 있다. 그러나 IPE 교육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간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5,15] 효과적인 교육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IPE를 담당할 간호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에 불과하였다. 교수진의 IPE 관여에 대한 유일한 예측인자가 IPE에 대한 인식 정도임을 고려할 때[1] 간호교육 제공자인 간호학 교수와 간호사의 IPE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설계에 대해 살펴보면, 5편의 연구 모두 양적연구로 조사연구 2편, 방법론적 연구 2편, 실험연구 1편이었다. 아직 IPE에 대한 인식이 낮고 초기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인식 조사나 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직 간'이라는 의미는 '학문 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IPE에는 상황적 맥락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참여자의 학습과정을 장기적으로 탐색하는 귀납적 종단연구가 필요하다[5]. 그러므로 다양한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IPE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4.2 주요어

5편 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3편의 논문에는 IPE가 주요어로 포함되었다. 나머지 2편의 논문에는 IPE가 주요어로 포함되지 않고 각각 전문직 간 관계(interprofessional relations)와 태도(attitude)가 포함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IPE 개념이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IPE 실행을 위한 학습 준비도

[8]와 IPE의 효과 검증을 위한 도구 개발[18]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외의 주요어로는 간호, 간호학과 학생, 의학과 학생, 물리치료, 임상병리 등과 환자안전, 인식, 자기효능감, 간호교육, 임상실무, 요인분석이 있었다. 이러한 주요어들은 연구의 대상, 연구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IPE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다양하고 핵심적인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 IPE의 중요 구성 요소인 전문직 간 실행, 현장의 실세성, 사회화[5]와 IPE의 시점 및 방식, IPE의 유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PE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논문은 4편이었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논문은 1편이었다. 4편의 논문 중 2편의 논문에서는 WHO(2010)의 정의를 인용하여 '둘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들이 함께 배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서로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3]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PE의 정의는 본 연구에서도 인용한 WHO(2010)의 정의이다. 이 정의에는 IPE는 의료 활동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전문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 중심적 접근, 협동, 사회학습 과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5]. 이와는 다르게 또 다른 2편의 논문에서는 IPE를 '둘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 전공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해 배우는 것 또는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전문직 간(interprofessional)'이라는 용어는 '학문 간(interdisciplinary)'이나 '다전문직(multidisciplinary)'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 개념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IPE는 단순히 함께 배우는 것 또는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간 실행을 통한 상호작용과 성찰을 거쳐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IPE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고 그 의미의 전달과 개념의 사용에 혼동이 있는 상태에서[5] 간호연구자들이 심도 있는 인식론적 고찰 없이 연구를 진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간호학에서 IPE 개념 정의 확립이 요구된다.

4.3 주요 결과

IPE에 관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IPE에 대한

인식, 중재로서의 IPE, IPE의 효과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째 범주의 연구는 2편으로, 간호사와 간호학 교수들의 IPE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1편과 간호 대학생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전문직 간 학습 준비도 조사 연구 1편이었다. IPE에 대해 알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학교수는 대상자의 약 11%로 국내 간호계에서 IPE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인식이 낮고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학교수들은 IPE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간호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간호사들에 비해 IPE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E의 도입을 위해서는 IPE의 현재와 미래 잠재력에 대한 간호 리더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간호관리자와 간호학 교수들의 IPE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저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간호 대학생들은 다른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에 비해 IPE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타 학과 전공학생들과의 수업 경험이 전문직 간 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IPE를 확대해 나간다면 간호교육에서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IPE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간호 대학생들의 IPE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IPE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간호학 교수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간호교육과정에 통합된 IPE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없다[8]. 간호학 교과목 중 IPE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드물어 간호학개론과 같은 극히 일부 교과목의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는 간호 대학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교육과정에서 IPE 교과목을 개발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담당 교수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IPE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 전문 인력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재로서의 IPE에 대한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에게 전문직 간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1편이었다. 연구 결과 전

문직 간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은 의료진의 지식과 태도는 물론이고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12] IPE가 필요하다. 국내의 IPE는 환자안전 뿐 아니라 환자 돌봄, 팀워크 등의 주제로도 진행되었고[11], 이는 전문직 정체성뿐 아니라 팀워크 협력, 의사소통 기술, 자신감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주제의 IPE를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범주는 IPE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의 타당화로 2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각각 전문직 간 태도(interprofessional attitude)와 전문직 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한국어판 측정 도구가 IPE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연구에서 IPE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이러한 도구를 활발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측정도구들은 의과대학생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는데, 전체 대상자 수 중 의과대학생의 수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수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에게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IPE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PE에 대한 간호연구가 극소수인 실정에서 향후 IPE가 협력적 실무 역량 증진에 효율적인 간호교육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IPE에 대한 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다양성과 확장성 확보에 기여 하고자 시도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총 5편이었다. 연구 결과, 국내의 간호연구에서 IPE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확인되었고, IPE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 대상 논문들의 주요 결과는 IPE에 대한 인식, 중재로서의 IPE의 효과, IPE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의 타당화로 분류되

었다. 간호사와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International Education Collaborative Expert Panel Report(2011)에서 제시한 전문직 간 협력적 실무 역량(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competency)이 가치와 윤리, 역할과 책임, 전문직 간 의사소통, 팀과 팀워크의 4가지임[4]을 고려할 때, IPE는 전문직 간 협력적 실무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간호교육에서도 IPE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IPE 개념 정의의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계의 IPE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규 또는 비정규 간호 교육과정에서 IP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IPE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다루는 다양한 설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 H. Kim, E. H. Hwang & S. J. Shin.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9(1), 18-24. DOI : 10.17496/kmer.2017.19.1.18
- [2] C. Hudson, K. Sanders & C. Pepper. (2013).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prelicensur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or*, 38(2), 76-80. DOI : 10.1097/NNE.0b013e3182 82996d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Framework for action i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 collaborative practice.
- [4] B. P. Black. (2020). *Professional Nursing(9th edition)*. ELSEVIER.
- [5] H. Y. Han. (2017).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Education: Can We Break the Silo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9(1), 1-9. DOI : 10.17496/kmer.2017.19.1.1
- [6] S. Reeves, S. Lewin, S. Espin & M. Zwarenstein. (2010). *Interprofessional teamwork for health and social care*. Oxford, UK: Wiley-Blackwell.
- [7] B. J. Yoon & J. H. Lee. (2010). A review study on interprofessional college education in health care sector. *J Korean Soc Sch Health Educ*. 11(1), 149-58.
- [8] H. K. Lee, I. S. Kim, T. H. Lee, G. S. Kim, E. H. Cho, K. H. Lee & J. H. Kim. (2019). Differences between Perceived Readiness for Interprofessional Learning in Nursing and Other Health-related Students. *Korean Acad Soc Nurs Educ*, 25(3), 312-320. DOI : 5977/jkasne.2019.25.3.312
- [9] R. Riskiyana, M. Claramita & G. R. Rahayu. (2018). Objectively measured interprofessional education outcome and factors that enhance program effectiveness: A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66(2018), 73-78.
- [10] L. Barr, R. Bull & K. Rooney. (2015). Developing a patient focussed professional identity: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medical students' encounters with patient partnership in learning.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20(2), 325-338.
- [11] H. Y. Park, J. Y. Cho & S. H. Chu. (2018).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3), 235-249. DOI : 10.5977/jkasne.2018.24.3.235
- [12] E. H. Shin. (2019). The effects of Inter-profess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healthcar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1), 409-417. DOI : 10.14400/JDC.2019.17.11.409
- [13] R. E. Grant, J. Goldman, K. LeGrow, K. M. MacMillan, M. van Soeren & S. K. A. (2016). A scoping review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within Canadian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30(5), 620-626. DOI : 10.1080/13561820.2016.1192589
- [14] C. Green. (2014). The making of the interprofessional arena in the United Kingdom: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8(2), 116-122.
- [15] S. Y. Kim. (2017).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9(1), 10-17. DOI : 10.17496/kmer.2017.19.1.10
- [16] L. Baker, E. Egan-Lee, M. A. Martimianakis, & S. Reeves. (2011). Relationships of power: Implications for interprofessional education.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5, 98-104. DOI:10.3109/ 13561820.2010.505350
- [17] K. Keith & D. Askin. (2008). Effective collaboration: The key to better healthcare. *Nursing Leadership*, 21(2), 51-61. DOI : 10.12927/cjnl.2008.19875

- [18] K. H. Park, K. H. Park, O. Y. Kwon & Y. J. Kang. (2020). A Valid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rofessional Attitudes Scal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2(2), 122-130.
DOI: 10.17496/kmer.2020.22.2.122

안 은 경(EunKyong Ahn)

[정회원]



- 2011년 3월~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리더십, 간호윤리
- E-Mail : aek@dst.ac.kr